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5 결과 보고서

I. 개요

행사명 제11회 동아시아 책의 교류

주제 파주 북디자인 워크숍

일자 2015. 10. 31(토)~11. 1(일)

장소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구성 1) 세미나 - 전문가 강연과 교류의 시간으로 구성된 국제 세미나

2) 그룹 워크숍 - 팀별로 전문가와 멘토를 투입, 각자 하나의 결과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

3) 팸투어(출판인 교류) - 초청연사 및 한국 출판인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초청 박상일(한국), 로랜드 스타이거(Roland Stieger, 스위스), 니지마 미노루(Nijima Minoru, 일본), 리엔지에(连杰 Lianjie, 중국)

집행위원장 안상수(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 날개(교장))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목적 다양한 문화권에서 경험을 쌓은 선배 출판인을 초청하여 북디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체험적 교육을 제공함. 콘텐츠 생산자가 가져야 하는 '새로운 시각'과 '진지한 태도'의 습득을 통해 북디자인의 가치와 북디자이너의 기량을 높이고자 함.

대상 전공 학생, 출판 기획자, 북디자이너, 출판인을 꿈꾸는 모든 이들

참가비 7만원(10인 이상 단체 6만원)

II. 일정표

10. 31(토) - 세미나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대회의실

시간	내용
13:00-13:10	개회식 환영사 : 김언호(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여는말 : 안상수(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5 집행위원장)
13:10-13:50	발표 1_무엇이 책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로랜드 스타이거(Roland Stieger, 스위스) 책은 발명 이래로 그 독자적 차별성을 간직하고 있다. 무엇이 책을 여전히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고 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전방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책 만드는 디자이너로서 책의 가치와 미래에 대하여 말한다.
14:00-14:40	발표 2_보이지 않는 것의 힘 - 언저리의 미학 박상일(朴尙逸, Par Sangil, 한국) 출판계의 언저리임을 자처하는 독특한 이력의 출판사 디자이너로서 한국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며 간과되거나 또는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디자인계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디자이너로서 책을 만드는 것은 편집자로서 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14:50-15:30	발표 3_서적의 미 - 제책 및 타이포그래피 역사에 주목하며 니이지마 미노루(新島実, Nijima Minoru, 일본) 문자 언어와 시각 언어의 역동적인 관계는 지역과 문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성립한다. 오늘날 책을 만든다는 것은 말과 형태의 관계가 제책 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조화되고, 이를 통해 거대한 시각 조형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강연에서는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활판인쇄 시대의 제책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 흥미로운 관계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15:40-16:20	발표 4_북디자인의 사회 관찰 - 독립출판의 다원화와 미래 리엔지에(连杰, Lianjie, 중국) 중국에서 출판은 국가산업이다. 다시 말해 당의 통제를 받는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새로운 책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필요성과 절실함은 더하다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중심에서 바라 본 독립출판과 북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들어본다.
16:20-17:30	종합토론 사회 : 안상수(동아시아 책의 교류 2015 집행위원장)

11. 1(일) - 워크숍

장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다목적홀

언어 : 언어권별 순차통역

시간	내용
10:00-17:00	팀별 워크숍
17:00-19:00	프레젠테이션 팀별 작업 결과물 발표/수료증 증정

워크숍 1_From Alpha to Unit

진행_로랜드 스타이거(Roland Stieger), 스위스

참가자들이 각자 준비한 책의 표제지를 영문 알파벳으로 재구성해본다. 본격적인 디자인에 앞서 그 책을 고른 이유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토론할 것이다. 진행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판 구성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고, 디자인에 있어 비율과 형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 준비물 : 표제지(도비라)가 마음에 들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책 한 권

워크숍 2_왜 나는 조그마한 일(사소한 것)에 분개(집착)하는가

진행_박상일(朴尙逸, Park Sangil), 한국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디자이너를 둘러싼, 혹은 디자이너가 야기하는 충돌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역할을 맡은 이들, 예를 들어 편집자나 마케터들에게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다. 왜 디자이너는 작은 것에 분노하는 존재가 됐을까. 학교에서는 북 디자인의 기본이라 배우지만 현장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책의 통합적 구성'을 알아보고, 그 구성에 있어 디자이너가 집착하는 '사소한 것'들의 중요함을 살펴본다. 워크숍은 진행자가 제시한 한 편의 글과 이미지를 함께 분석해보고 직접 편집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작업을 통해 편집자의 시각에서 체크해야 할 것과 디자이너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따로 또 같이 살펴보며 '책 만들기'를 오롯이 이해해보자.

※ 준비물 : 노트북(디자인 작업용, 인디자인)

워크숍 3_텍스트의 분해와 구축

진행_니이지마 미노루(新島実, Nijijima Minoru), 일본

'음식 조리법'이나 '날씨 개요' 등 개인의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영문 텍스트를 가지고 영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기본을 다룬다. 타이포그래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로는 그 크기와 자간, 어간, 행간, 단폭, 단간, 쪽 숫자, 행의 정렬, 제목, 기호, 혼합 문자, 마진 등을 들 수 있다.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있어 정해진 텍스트는 절대적인 것이며, 내용을 조판해갈 때 자의적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표면적 해석에 따라 텍스트를 정해진 레이아웃 틀에 그대로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타이포그래피의 조형 요소가 가진 의미를 바르게 이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워크숍에서는 상기의 기본적인 텍스트의 구조를 살피고, 더불어 공간적 노이즈의 컨트롤을 연습하려 한다. 언뜻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여러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문자기호의 조형 작업을 통하여 문자로부터 언어를 끌어 올리는 과정의 심오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준비물 : 노트북(디자인 작업용, 사용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음.)

Ⅲ. 연사 소개



1. 세미나 & 워크숍

로랜드 스타이거(Roland Stieger), 스위스

Jost Hochuli의 지도 아래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로 학위를 따고 조판사 인턴으로 근무했다. 1993년 TGG Hafen Senn Stieger 스튜디오 공동 오픈 후 북디자인은 물론 웹디자인, 전시디자인, 기업디자인 등 다양한 시각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 Hansjürg Hunziker와 André Baldinger 밑에서 CAS형 디자인을 사사한 이후 2011년, Abclitera를 Jost Hochuli와 Jonas Niedermann과 함께 설립했다. TGG의 작업들은 '가장 아름다운 스위스 북디자인', '뉴욕타이포아트디렉터클럽', '레드닷어워드', '유럽디자인어워드', '조셉바인더상' 등 다수의 국제적 상을 받으며 인정받고 있다.

박상일(朴尙逸, Park Sangil), 한국

한양대 건축학과를 졸업. 잡지 <모닝캄> 기자로 출발하여 <지성과 패기>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출판사 <박가서.장>과 디자인회사 <박가공.장>의 대표로 편집과 디자인의 경계에 도전하는 다양한 실험들을 펼치기 시작했다. 디자인하우스 DES 본부장, <도베> 편집장을 지냈고 2004년에 '수류산방'을 설립했다. 2004년에 디렉팅한 책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가 프랑크푸르트 북페어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에 선정되었다. '한국의 북 디자이너' 41인에 소개된 바 있으며, 2011년 <예술사 구술 총서>로 코리아 디자인 어워드(그래픽 디자인 부문) 수상, 2015년 파주북 어워드 출판미술상을 받았다.

니이지마 미노루 (新島実, Niijima Minoru), 일본

1948년 도쿄 출생. 예일대학교 미술학 석사학위를 마쳤다. 1988년 일본 타이포그래피협회 대표 상임위원, 2003년 일본 산업디자인진흥회 굿디자인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일본 그래픽디자이너협회 회원이자 AGI일본 사무국장, 무사시노미술대학 시각전달디자인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2. 세미나

리엔지에(连杰, Lianjie), 중국

중앙예술아카데미에서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졸업 작품 "코드 일기"로 도쿄 PDC 상을 수상했으며, 이후로도 국제적인 상 다수 수상. 2010년 디자인 스튜디오 Mushangsi & Jixiaodian 오픈 운영 중

3. 집행위원장

안상수(安尙秀, Ahn Sangsoo), 한국

시각디자이너로, 한글 글꼴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안상수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등 많은 글꼴을 개발함. 1983년 한국신문상, 1988년 한글학회 표창, 2007년 독일 라이프치히시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상 등을 수상함. 전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현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파티)의 날개(교장)이자, 런던 왕립미술학교(RCA) 방문교수, AG타이포그래피연구소 소장임. AGI(국제그래픽디자이너연맹) 회원